

韓國語辭典과 古語

李賢熙*

1. 머리말

이 글¹⁾은 지금까지 편찬되어 나온 한국어사전에 고어가 어떤 식으로 등재되어 있는지 살피고 앞으로 새로운 한국어사전을 편찬할 때 고어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모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이 글에서 말하는 '韓國語辭典'이 뜻하는 바를 밝혀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가장 소박하게는 한국어와 관련되어 있는 사전을 한국어사전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에서의 한국어사전은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와 관련하여서는 그 범위가 너무 넓다. 여기에서는 그 범위를 한정하여 한국어를 표제항으로 하여 그것을 한국어로 뜻풀이한 註釋辭典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對譯辭典類에서 고어를 다루는 경우는 극히 드물 뿐 아니라 그러한 사전류에서 고어를 다루는 일은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어사전을, 고어를 담고 있는

* 본과 교수

1) 이 글은 1994년 7월 27일에 日本 東京에서 열린 제2차 한국학 환태평양 국제회의에서 같은 제목으로 발표된 필자의 초고에 약간의 손질을 가하여 작성되었다. 1994년 이후에 간행되어 나온 고어사전류에 대한 약간의 언급이 여기에 추가되었다.

확장형 한국어사전류와 선별형 고어사전류의 둘로 나뉘어 살펴보고자 한다. 고어를 담고 있는 확장형 사전은 대개 大辭典에 속한다.

흔히 사전은 최대한 친절해야 한다고들 한다. 이 말은 사전이용자가 어떤 사전을 들추어 보았을 때 자기가 알고 싶은 정보를 최대한 얻을 수 있도록 배려되어 있는 사전이 좋은 사전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사전은 독자층이 누가 될 것인지 상정되어 편찬되기 마련이다. 대개 독자층은 언어학습자가 되거나 학문연구자가 된다. 일반언어사전도 그러하거니와, 특히 그 편찬이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고어사전류는 언어학습자와 학문연구자의 두 독자층이 알고 싶은 모든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고 만족감을 줄 수 있게 배려되어 있어야 한다.²⁾ 그러나 실상 이러한 양면을 다 충족시키는 사전을 그렇게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기존의 사전류를 바탕으로 가위질하여 편집하고 짜깁기하며 登載된 어휘 수 늘리기에 급급했던 시왕의 한국어사전류들에서는 이러한 양면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었다. 사전편찬 작업이 그 당대까지 이루어진 한국어 연구에 대한 종체적인 형상화 작업이 되어야 할 터이지만, 불행하게도 지금까지의 한국어사전은 그러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1980년대 이후 한국어사전의 편찬이나 확장형 한국어사전류에 고어가 처리되어 있는 양상에 대하여는 그다지 많은 관심이 베풀어서 오지 못했던 듯하다. 최근 들어 李基文(1992)에서 한국어사전류에 고어가 등재되어 있는 양상과 그 어원표시에 관심을 집중하여 간략하게 다루어 본 바 있고 洪允杓(1992)에서 고어사전류를 편찬할 때 유의해야 할 점들을 포괄적으로 다룬 바 있으며, 한재영(1989)에서 南廣祐의 『古語辭典』(1960)과 劉昌淳의 『李朝語辭典』(1964)를 주대상으로 하여 15세기에 한국어 사전을 편찬할 때 보강해야 할 점들을 점검해 본 바 있다.³⁾ 이전에는 주로 출간되어 나온 고어사전에 대한 서평(俞昌均 1961, 中村亮 1968)이나 풀이말에 대한 검토작업(지춘수 1969a, b)이 행해진 바 있다.³⁾

2) 사전이 가져야 할, 교육적 기능과 학문적 기능의 두 가지 기능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는 이의환(1992)를 참조하기 바란다.

3) 이 논문의 초고가 씌어진 이후, 李秉根(1995)에 의해 『17세기 국어사전(상, 하)』(태화사, 1995)에 대한 간략한 서평이 나온 바 있다.

2. 古語의 概念

1920년에 편찬되어 나온 朝鮮總督府의 《朝鮮語辭典》⁴⁾ 아래 확장형 사전 류뿐 아니라, 선별형 사전인 고어사전류에도 吏讀語나 古制度語(거의 다 漢字 語로 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현대어 이전의 고유어 외에도 이 두어, 고제도어 등이 다 고어의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던 것이다. 변변한 사전이 없었던 초창기에 독자들로 하여금 그 사전만 이용하면 옛 문헌을 읽어 해독할 수 있기를 바랐던 사전편찬자들의 의도가 크게 작용하여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기는 하지만, 특히 고제도어가 초기의 고어사전류에서 다루어짐으로써 고어 사전은 스스로 고어사전답지 않은 길을 걸어 갔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전문적인 고어사전이 출간되면서 고제도어를 고어사전에서 제외하고 다루지 않게 됨으로써 이러한 점은 점차 극복되어 갔다.

여기에서 먼저 古語 내지 옛말의 개념부터 살펴볼 필요가 생겨난다. 고어가 현대어 이전에 사용되던 말이라는 데에는 異見이 없다. 그런데 현대어 이전에 사용되던 말 가운데에는 고유어 외에 借字表記語彙⁵⁾도 있고 借用語(내지 外來語)도 있으며, 차용어의 특수한 부류인 한자어도 있다. 이들 가운데에는 현대어에서도 그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이 부류의 어휘를 '殘存語'라고 부르기로 한다), 아예 소멸해 버리고 현대어에 남아 있지 않는 어휘도 있다(이 부류의 어휘를 '死語'라고 부르기도 한다).⁶⁾

4) 이 사전은 엄밀히 말하면 이 글에서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사전류에 포함시킬 수 없다. 그러나 이 사전의 편찬에 상당수의 한국인이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애초에 韓日辭典으로 계획되었던 것이라서 그 풀이말도 한국어를 일본어로 번역한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小田幹治郎 1920 : 275~279; 金敏洙 1971 : 242~243) 여기에서 언급을 해 둔다. 《朝鮮語辭典》의 底本이 된 것이 朝鮮總督府 編의 61冊짜리 《朝鮮辭書原稿》(1920)인데 표제항과 日文 풀이말 사이에 한국어 풀이말이 있다는 사실도 위와 같은 처리가 합당함을 단적으로 말해 준다고 할 것이다. 이 稿本의 존재와 그 성격에 대한 정보는 李秉根(1982)를 참조하기 바란다.

5) 이 借字表記語彙에는 좁은 의미의 吏讀語彙와 群都日式 取音表記語彙가 다 포함된다.

6) 古語가 이 두가지 부류로 나뉨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준별을 주장한 것은 辛兌鉉

이 고어를 처리하는 방식은 사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잔존어와 사어를 사전의 표제항으로 등재할 것이냐 등재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겨나는 바, 그에 대한 처리방식이 사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고어를 담고 있는 확장형 한국어사전의 경우에는 死語는 대개 표제항으로 등재시키지만 잔존어는 현대어로 취급한다. 확장형 한국어사전에서 잔존어를 고어로 취급하여 표제항으로 등재시켜 옛 문헌의 예문을 제시하는 일이 없는 데 비해, 고어사전의 경우에는 사어와 잔존어를 다 원칙적으로 사전의 표제항으로 등재시킨다.⁷⁾ 적어도 총체적인 언어사전을 표방하는 대사전류에서는 그것이 통시적 사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잔존어의 경우 최초의 출현 문헌 정도는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 기본적 성격이 주석사전이면서도 백과사전적인 성격을 띠는 기준의 확장형 한국어사전들은(특히 대사전들은)⁸⁾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어 수집이 가능하다면, 고유어의 옛말 외에 이두어, 현대에 쓰이지 않는 한자어, 차용어, 고관직명·고제도명 등도 다 포함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조치는 사전의 성격상 당연한 처리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⁹⁾ 그에 비해, 고어사전류에서는 그 사전을 통해 독자가 옛 문헌을 해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적의식이 강하였기 때문에 초기의

(1940)에서도 볼 수 있다. 그는 古語를 '現代語의 前身인 原語'와 '死語'로 갈라서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옛날에는 쓰이다가 현대어에서 쓰이지 않게 된 한자어도 고어로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李基文(1992 : 8)에서 살릴 수 있다.

- 7) 그러나 실제로는 현대어에 잔존하는 고어 가운데 고어사전의 표제항에서 빠져 있는 것이 매우 많다.
- 8) 확장형 사전에서 '가고한다'와 같은 고어가 수록되는 일은 大辭典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中辭典이나 小辭典에서도 고어가 수록되기도 하는 것이다. 고어가 수록되어 있는 중·소사전류는 한글학회에서 편찬해 낸 『한글학회 지은 중사전』(한글학회 출판부, 1958)과 『한글학회 지은 소사전』(정음사, 1960)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런 사전류에서도 표제항에 성조 표시를 하고 있으나 예문은 들지 않고 있다.
- 9) 그러나 북한사전은 그렇지 않다. 뒤에서 언급될 바와 같이 『조선말사전』(1960~1962)과 『조선말 대사전』(1992)을 제외하고는 고어를 수록한 확장형 한국어사전을 찾아볼 수 없다. 그들의 사전편찬 방침에 의해(특히 1964년에 행해진 김일성의 교시에 의해) 역사성과 전통성을 배제하고 규범성과 실용성을 중시하게 되면서부터(특히 이른바 '현대성의 원칙'에 의해) 쓸 말과 버릴 말을 구분하고 쓸 말만을 취사선택하여 사전에 등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대사전류에서도 고어류가 빠지게 되었던 것이다.

고어사전류에서는 잔존어는 대개 제외시켰으나, 死語인 고유어·이두어·고제도어 등은 다 포함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방식이 꽤나 오랫동안 그 전통을 유지하게 된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었다. 제대로 된 이두사전, 고제도사전 등의 전문사전¹⁰⁾이 나오게 된 일이 지금으로부터 얼마되지 않은 시점의 일이기도 하였거니와 사전편찬자들이 기존 사전의 틀을 맹목적으로 답습한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요컨대 고어의 개념을 확대하여 볼 것인가, 좁혀서 볼 것인가 하는 인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앞으로 새로이 편찬되어 나올 고어사전류는 그 성격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고유명사류와 고제도어를 고어사전에서 제외함으로써 순수언어사전의 성격이 부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擴張型 韓國語辭典과 古語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지금까지 한국에서 간행되어 나온 확장형 한국어사전류는 고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대사전을 표방하는 경우에는 거의 예외가 없었다. 그러나 북한에서 간행되어 나온 사전은 고어를 담고 있는 경우가 드물었다. 뒤에서 볼 ③과 ⑧의 두 사전이 고어를 담고 있는 대표적 사전이다.¹¹⁾

이제 고어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확장형 한국어사전류를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한다.¹²⁾ 이 외에도 대사전류가 몇 종 더 있으나 이 정도의 개관만으로도 그 사

10) 이러한 전문사전은 뒤의 제4장에서 다시 언급된다.

11) 이 두 사전에 한자를 이용하여 표기한 吏讀는 실려 있지 않다. 그러나 '마지기'[斗落], '반자'[擇上], '지반'[遲晚] 등과 같은 어휘는 실려 있는데 대개는 통번사회에서 쓰던 말이라고 표시되어 있다(이 세 예들 가운데에는 후2자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③은 본문의 표제항으로 고유어의 고어를 다루고 있는 데 반해, ⑧은 부록으로 고어사전(부록 2) 외에 방언사전(부록 1)을 신고 있는 바, 이 후자는 ⑦과 비교될 만하다. 남한에서 간행되어 나온 확장형 한국어사전인 ⑦은 그 넷째 권이 '고어와 방언' 대신 '옛말과 이두'로 되어 있다는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고어를 따로 처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⑧과 그 성격을 같다고 할 것이다.

12) 한국어사전류 편찬의 역사는 李秉根(1986, 1990a)를 통하여, 그리고 특히 1960년 초반

정을 짐작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 ① 1938. 文世榮, 『朝鮮語辭典』, 京城 : 朝鮮語辭典刊行會(1939년에 朝鮮語辭典刊行會와 1946년에 永昌書館에서 『修正增補 朝鮮語辭典』으로 다시 간행되고, 1954년에 三文社에서 『우리말사전』으로, 같은 1954년에 永昌書館에서 『수정증보 국어대사전』으로 다시 간행됨).
- ② 1947~1957. 한글학회, 『조선어학회 지은 조선말 큰사전』, 서울 : 을유문화사 (1957년에 제6권이 완간되었을 때에는 『한글학회 지은 큰사전』으로 됨).
- ③ 1960~1962. 과학원 언어문화연구소, 『조선말 사전』, 평양 : 과학원출판사.
- ④ 1961. 李熙昇, 『국어대사전』, 서울 : 民衆書館(1981년에 民衆書林에서 수정증보판, 1994년에 개정판이 간행됨).
- ⑤ 1975. 신기철·신용철, 『새 우리말 큰사전』, 서울 : 삼성출판사(1985년에 제6차 수정증보판이 간행됨).
- ⑥ 1991. 김민수·고영근·임홍빈·이승재 편, 『금성판 국어대사전』, 서울 : 금성출판사.
- ⑦ 1992. 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 서울 : 어문각.
- ⑧ 1992.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 대사전』,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이 사전들은 순수언어사전인 주석사전의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도 대개 백과사전적 사전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¹³⁾ 큰 부과의 한 권으로 된 사전도 있고 적게는 두 권, 많게는 여섯 권으로 分卷되어 있는 사전도 있다.¹⁴⁾

까지 편찬되어 나온 다양한 한국어사전류는 中村完(1962a, b)를 통하여, 북한에서 편찬되어 나온 한국어사전류는 조재수(1986, 1988), 李秉根(1990b)와 차재은(1991), 그리고 대표적인 3종의 사전만을 다룬 박금자(1989)를 통하여, 중국의 조선족에 의해 편찬되어 나온 한국어사전류는 金琪鑄(1992)와 최윤갑 주필(1992)를 통하여 그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3) 그러나 처음부터 제도나 고유명사를 표제항으로 삼지 않는 사전도 없지는 않았다. ③의 『조선말사전』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14) 사전이 처음 편찬될 때 확정된 권수는 版數를 거듭할 때에도 그대로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전편찬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사전을 찍어 내는 출판사에서 그러한 결정을 내렸겠지만, 판수를 거듭하거나 3쇄·4쇄를 거듭하는 가운데 독자들의 편의를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노 닷없이 장정이나 그 권수를 달리하는 경우가 없지 않은데 이러한 행위는 재고해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간행되어 나온 ⑥이 원래 한 권짜리 사전이었는데 그것을 1994년에 제6쇄째 다시 찍어 내면서 두 권으로 분권한 일이라든가, ⑦이 원래 네 권짜리 사전이었는데 그것을 1994년에 제3판째 나시 찍어 내면서 두 권짜리 사전

①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고어를 담고 있는 사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간혹 가다 고어(현대어에서 쓰이지 않는 어휘라는 의미에서)의 관점에서 매우 흥미있는 어휘들을 많이 수록하고 있다. 단지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¹⁵⁾ 예컨대, '설미'항을 보면 '변경'과 '갈피'의 옛말이라고 풀이하여 놓았는데¹⁶⁾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¹⁷⁾ 이 사전도 朝鮮總督府의 《朝鮮語辭典》(1920)과 마찬가지로¹⁸⁾ 표제항에 이두를 포함하고 있다. 卷末에 이두찾기[吏讀索引]를 덧붙이고 있는 점도 《朝鮮語辭典》과 동일한데 그 후에 간행되어 나온 일부 사전의 본보기가

으로 둔갑시킨 일은 지나친 처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특히 ⑦의 경우에는 애초에 넷째권이 옛말과 이두를 담은 것이었는데 현대어 부분과 이 부분을 함께 묶음으로써 이용상 훨씬 불편하게 만든 改惡의 대표적인 경우라 할 것이다.

- 15) 이 사전에서는 예문을 들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어휘들이 옛 문헌에서 거의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死語나 罷語라고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전의 일러두기에서는 '옛날 말은 지금 빌음활 수 있는 말만 수용하였습니다'라고 하여 殘存語만 표제 항에 등재한 듯이 말하고 있다. 이 어휘들이 정말로 當代의 잔존어였는지는 달리 구명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 16) 이 '설미'항은 다른 사전들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③에는 낡은 말로 등재되어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③이 그 이전에 편찬되어 나온 여러 사전을 다 참조하여 얹은 것임을 알 수 있다.
- 17) 그러나 매우 암시적이라는 말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세영의 《朝鮮語辭典》이 담고 있는 표제항 및 그 풀이말과, 그리고 여기에서 다를 성격의 것은 아니지만 崔南善이 朝鮮光文會編으로 출간해 낸 《新字典》(新文館, 1915)의 풀이말에는 매우 특이한 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후자의 풀이말은 주시경과 김두봉이 관여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그에 포함되어 있는 특이한 말들이 문세영의 사전에서만 대부분 확인이 된다는 사실은 그 두 辭書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말한다 할 것이다. 문세영 사전에 보이는 '설미'는 《新字典》에서는 '塞'의 訓과 '畿'의 訓으로 달고서 각각 '邊界'와 '界也'라는 주석을 달고 있다. 《新字典》과 문세영 사전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은 徐在克(1976)에서도 어느 정도 언급된 바 있다. 졸고(1994b)에서는 고려가요 <處容歌>의 '설미' 모도와 有德^{호신} 가스매에 나오는 '설미'를 이 문세영 사전의 '설미' 항 및 《新字典》의 풀이말 '설미'와 관련시켜 해석해 본 바 있다. 이런 견지에서, 앞으로 《말모이》와 《新字典》, 문세영의 《朝鮮語辭典》 사이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 18) 朝鮮總督府에서 간행한 《朝鮮語辭典》에서 727개의 이두를 다룬 아래 그 이후의 화장형 사전에 이두가 실리기 시작하였다. 문법형태를 따로 독립시키지 않고 등재하는 점도 이 사전 이후에 간행되어 나온 사전들에서 그대로 답습되었다.

되었다.

②는 6권으로 여러 해에 걸쳐 간행되어 나온 사전이다. 군데군데 死語인 고어, 吏讀가 표제항으로 등재되어 있고 그 뜻풀이 및 예문, 그리고 출처가 명기되어 있다. 고어의 표제항에는 성조표시가 되어 있는 점이 특징적인바, 현대어의 표제항에 장단표시가 되어 있는 것과 同軌의 사실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고어 부분에 ‘疑心 hẳn’식의 한자어휘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러한 편찬방식이 그 이후에 편찬되어 나온, 고어를 담고 있는 확장형 한국어사전의 모델이 되어 거의 그대로 답습되었지만 표제항에 성조표시를 하는 점은 국어국문학회 편의 『국어 새사전』(동아출판사, 1958) 등 몇 사전을 제외하고는 따라지지 않았다. 권 6의 통계표에 의하면, 옛말이 3013개, 이두가 1449개 등 재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두는 그 獨법¹⁹⁾에 따라 배열하였으며 권 6의 끝에 ‘이두 말 찾는 법’을 덧붙여 두었다.

③도 6권으로 여러 해에 걸쳐 북한에서 편찬되어 나온 사전이다. 아마도 1957년에 ②가 완간된 이후 그에 자극받아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편찬되기 시작하였으리라고 짐작되고 있다(조재수 1986: 26). 그러나 우연히도 1957년에 ③의 편찬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될 뿐이지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대어에 남아 있는 잔존어들은 제외하고 死語만을 표제항으로 등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②와 공통적이다. 이 ③은 그 기반 문법서가 『조선어문법』(1960)이기 때문에 고어를 등재하였다. 이 문법서가 현대 표준어에 대한 서술적 규범성에 현대어 이전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박금자 1980: 177). 그러나 이두를 수록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남한에서 편찬되어 나온 여느 사전들과 큰 차이를 보인다.

④는 한 권으로, ⑤는 두 권으로 간행되었다. ④와 ⑤도 고어와 이두를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②와 ③과 다름이 없다. 이를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고어는 성조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예문도 한두 개 정도 제시되어 있다는 공통성을 보인다. 이두의 경우 문법형태를 포함하는 활용형은 형태별로 분석이 되어 있지

19) 이두의 獨법과 표기는 朝鮮總督府 中樞院 발행의 『吏讀集成』(1937)을 원칙적으로 기준삼았다고 범례에 적어 두고 있다.

않고 그 전체가 덩어리로 등재되어 있다. 심지어 특수사전인 《이두사전》(1976)에 수록되어 있는 어형도 그러하니 이런 확장형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것 만 탓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편찬되어 나올 사전에서는 문법형태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⑥, ⑦, ⑧은 1990년대 들어 비슷한 시기에 간행되어 나왔다는 공통성을 보인다. 원래 ⑥은 한 권으로, ⑦은 네 권으로, ⑧은 두 권으로 간행된 것인데, 뒤에 다시 찢어 내면서 ⑥과 ⑦이 다 두 권으로 간행되어 나왔다. 이 세 사전은 고어를 다루는 태도에 있어서는 서로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⑥은 死語인 고어를 본문의 표제항으로 달고 뜻풀이 외에 꽤 자세한 문법정보를 제시하고 형태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표제항 자체부터 더 나뉘어 등재되어야 할 것이 덩어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많고²⁰⁾ 표제항에 성조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는 단점을 보인다. 이두는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고 부록의 일부에 ‘이두 읽기’를 두어 참조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이두는 한자의 획수와 부수에 따라 차자표기 자체를 표제항으로 삼고 그 독법을 달아 주고 있으나 형태분석은 되어 있지 않다.

⑦과 ⑧은 지금까지의 확장형 사전들과는 달리 고어 부분을 따로 分卷한다거나 권말에 부록의 일부로 처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보인다. 아마도 잔존어를 현대어로도 처리하고 고어로도 처리하는 것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엄밀히 고어 부분을 포함하는 전체가 확장형 사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⑦은 ‘옛말과 이두’를 권 4에 수록하였다. 옛말 부분은 그 자체가 지금까지 나온 어느 고어사전보다도 충실히 꾸려져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 표제항에 성조를 충실히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²¹⁾ 등재된 예문도 기존의 고어사전에 비

20) 대표적으로 ‘흐-’의 활용형을 거의 다 표제항으로 삼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흐느니라’, ‘흐느니이다’, ‘흐다라’, ‘흐다소라’, ‘흐린댄’ 등이 다 표제항으로 되어 있다.

21) ⑦에서는 표면형의 성조가 차이가 날 때에는 그 성조형을 하나의 표제항 뒤에 다 제시해 주고 있다. 이러한 처리방식은 환경에 따라 어간말음이 변동되는 변이형태를 각각 다 표제항으로 삼는 태도와는 대척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용언의 경우 그 기본적인 표제항을 어미 ‘-다’가 붙은 어형으로 제시할 뿐 아니라 이 때에는 어간의 받침이 형태음소

하여서 풍부한 편이며 관계어(특히, 유의어)를 충실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이두는 현대의 한국한자음을 그대로 살린 것과 그 독법을 다 표제 항에 등재하고서 전자에다가 ‘가 보라’는 표시를 하여 독법을 표제항으로 한 데에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배열해 놓았다. 이런 방식은 ⑦이 현대의 한국한자음 표시와 그 독법을 함께 표제항으로 처리한 점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①과 ②에서 독법만 표제항으로 등재하고 현대의 한국한자음으로 읽은 색인을 권말[②의 경우는 권 6의 말]에 따로 두는 방식과 그 기본발상에서 는 차이가 없다.

문화어 운동(1966) 이후 이른바 사전편찬의 네 원칙 가운데 “현대성의 원칙”에 의해 고어를 일체 등재하지 않던 북한사전 편찬의 흐름과는 달리, ⑧에서는 고어를 나루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고어학습과 고전교육도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부록이기는 하지만 고어 부분을 따로 둘 것으로 보인다. 1980년 대 이후 북한학계에서 한국어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²²⁾ 이러한 생각이 전혀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두는 ③에서와 마찬 가지로 ⑧에서도 ‘등재되지 않았다. ‘낡은 말’을 굳이 수록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

적인 것으로 표기된다), 자음어미 앞이나 모음어미 앞에서 실현되는 어간형태(이때 받침은 중화된 자음으로 표기되거나, 유성마찰음 계열의 것 또는 그에서 변화된 음소로 표기된다)도 그 뒤에 하이픈을 붙여 표제항을 달리 하여 따로 등재시키고 있으며, 체언의 경우에도 변이형태를 다 표제항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용언의 변이형태를 표제항으로 할 경우에는 그 뜻풀이에 ‘-다’형의 대표형태 표제항과의 관련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자음조사 앞에서의 체언의 변이형태를 표제항으로 할 경우에도 그 대표형태와의 관련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성조표시뿐 아니라, 변이형태의 표기를 반영하는 것도 이 사전이 보이는 순수히 기술적인 사전편찬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점은 이 사전이 기존의 전문적인 고어사전인 《古語辭典》이나 《李朝語辭典》보다 진일보했음을 보인다. 이 사전의 이러한 처리방식은, 예컨대 《古語辭典》의 경우 ‘즐겁다’를 대표표제항으로 잡고서 그 아래에 이 용언의 활용표를 제시하고서도 그 외에 ‘즐겁다’, ‘즐거본’, ‘즐거벼’, ‘즐거봄’, ‘즐거보며’, ‘즐거본’ 등도 표제항으로 삼아 낭비적인 면을 보이며, 《李朝語辭典》은 ‘즐겁다’ 하나만을 표제항으로 삼아서 예문을 통해서야만 그 활용형을 알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인색한 면을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두 고어사전의 처리방식보다는 ⑦의 《우리말 큰사전》의 처리방식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22) 북한 학계에서 이루어진 한국어사 연구에 대한 개관은 졸고(1992)를 참조하기 바란다.

에서 그러한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방언사전이 부록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확장형 사전에서 고어가 다루어진 것은 최근에 간행되어 나온 ⑦, ⑧을 제외하면, 거의가 다 맛보기로 끼어 들어가 과상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불과하다. 이러한 사전류를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편찬되어 나올 고어사전류가 훨씬 더 충실한 것이 되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4. 古語辭典과 古語

우리가 앞에서 좁혀 놓은 한국어사전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만약 그 존재를 찾아낼 수 있다면 아마도 前間恭作의 《朝鮮古語辭典稿本》(8책, 저술 연대 未詳, 현재 행방불명)이 최초의 한국어 고어사전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 稿本은 적어도 前間恭作이 서거한 1942년 이전에 그가 18년 동안 수집해 온 한국의 고서들을 바탕으로 하여 그것들을 읽고 해석한 작업의 결과 마련되었다. 이 원고본이 1943년에 京城帝國大學의 도서관에 기증되었다고 하나 아쉽게도 지금으로서는 그 존재를 찾아볼 수 없다.²³⁾

1945년 해방 직후 고어 학습을 위해 4종의 고어사전류[다음의 ⑩, ⑪, ⑫, ⑬의 사전들]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이후 몇 종류의 고어사전이 더 간행되어 나왔는데 지난 30년 동안 南廣祐의 《古語辭典》과 劉昌惇의 《李朝語辭典》이 대표적인 고어사전으로 크게 활용되어 왔다. 고어사전류는 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기록까지 포함하여 다음에 나열해 본다.

- ⑨ 1940. 辛兌鉉, 〈古語集解〉, 《正音》 35, 京城 : 朝鮮語學研究會.
- ⑩ 1946. 方鐘鉉, 《古語材料辭典(前集)》, 서울 : 東農社.
- 1947. 方鐘鉉, 《古語材料辭典(後集)》, 서울 : 東省社.

23) 이 원고본의 존재와 그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末松保和(1957)과 河野六郎(1974)를 참조하기 바란다. 필자도 몇 차례 서울대학교 도서관을 뒤져 보았으나 이 원고본을 찾을 수 없었다.

- ⑪ 1948. 丁泰鎮 · 金炳濟, 《朝鮮古語方言辭典》, 서울 : 一成堂書店.
- ⑫ 1948. 鄭熙俊, 《朝鮮古語辭典》, 서울 : 東邦文化社 [1955년에 劉昌惇이 다시 《古語辭典》으로 東國文化社에서 재간행함].
- ⑬ 1949. 이상준, 《조선 옛말 사전》, 서울 : 을유문화사 [1953년에 그 아들 이영철이 책명을 《옛말사전》으로 하여 재간행함].
- ⑭ 1949. 김종오, 《古語 解例(1~8)》, 《조선어 연구》 1.1~1.8, 평양 : 조선어문 연구회.
1950. 김종오, “古語 解例(完)”, 《조선어 연구》 2.3. 평양 : 조선어문연구회.
- 15 1960. 南廣祐, 《古語辭典》, 서울 : 東亞出版社.
1971. 南廣祐, 《補訂 古語辭典》, 서울 : 一潮閣.
- 16 1964. 劉昌惇, 《李朝語辭典》, 서울 : 연세대학교출판부.
- 17 1965. 리서행, 《조선어 고어 해석》, 평양 : 고등교육출판사.
- 18 1995. 한국정신문화연구원(홍윤표 · 송기충 · 정 광 · 송철의) 편, 《17세기 국어사전》(상) · (하), 서울 : 태학사.

단행본으로 편찬된 고어사전류는 대개 1970년대 이전에 간행되어 나왔음을 알 수 있다.²⁴⁾ ⑨와 ⑭는 사전이라고 할 수 없다. ⑨는 370여 개의 중세한국어 어휘에 대해 한자로 뜻풀이만 하고 예문은 제시하지 않은 단편적인 기록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으나, 필자 자신이 고어사전 편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사전의 형식을 갖추어 보고자 한 시도였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한재영 1989: 524). 그에 비해 ⑭는 아홉 번에 걸쳐 연재한 것으로서 한글로 뜻풀이를 행하였으며 예문도 꽤 많이 들고 출전까지 상세하게 밝혀 놓은 편이다.²⁵⁾ 상당히 많은 분량을

24) 앞 장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우리말 큰사전》 권 4와 《조선말 대사전》의 <부록 2>를 독립시킨다면 흥륭한 고어사전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고어사전류가 편찬된 지 근 30년만에 새로운 고어사전이 편찬되어 나온 셈이 된다. 그런데 필자의 寡聞 탓인지 모르겠으나 중국 연변에서는 고어사전류가 간행되어 나오지 않은 듯하다. 최윤갑의 《중세조선 어문법》(1987)에 부록으로 ‘고어해석’이라는 제목 아래 중세한국어 어휘 600여 개가 예문은 없이 간략하게 뜻풀이되어 있는 것이 고어를 모아 놓은 유일한 集成이 아닌가 한다. 그 뜻풀이 뒤에는 간혹 가다 문법정보를 간략하게 덧붙여 놓은 곳도 있다.

25) 이와 비교가 되는 것이 여기에 따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김인호의 <옛날말 해석>(《문화어학습》 제1호와 제3호, 1989)이다. 1980년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북한학계에서는 다시 고어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듯하다. 이 김인호의 <옛날말 해석>도 일반 대중을 위해 짚필된 것인바, 주로 통시적 관점에서 매우 소략한 변천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그 항의 30개 가량의 예만 들어 두고 있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 연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이 ⑭는 그것을 모아 단행본으로 묶으면 훌륭한 고어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서 ⑩, ⑪, ⑫, ⑬의 것들과 마찬가지로 당시로서는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고전교육 및 고어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집필된 것이다. 그 외의 것은 다 단행본으로 간행되어 나왔다.

이제 단행본으로 간행되어 나온 고어사전류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본다. 그 편찬취지에서 볼 때 ⑩, ⑪, ⑫, ⑬, ⑭은 초학자나 일반대중의 교육을 위해, ⑮, ⑯은 교육의 기능과 연구의 기능에 다 부합하도록 편찬된 것이다.

⑩은 古制度語 및 歷史語와 死語로서의 고어들을 수록해 놓았다. 후자의 어휘에 대하여는 표제항과 예문에 다 성조표시를 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1960년 이후의 고어사전에서도 표제항에만 성조표시를 했을 뿐이지 예문에 성조표시를 한 일은 없다. 이 사전의 수록대상이 된 자료의 종류와 표제항의 양은 상당히 풍부한 편이다. 고어에 대한 뜻풀이는 대개 대응하는 한자를 제시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

⑪은 고어부, 이두부, 방언부의 세 부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분량으로 볼 때에는 고어부가 1/8 정도밖에 되지 않아 가장 빈약하다. 그뿐 아니라 표제항에 성조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예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사전이라고 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그러나 풀이말은 현대어로 되어 있다.

⑫는 그 書根題가 《옛말 옛일 이두 옛책 풀이 朝鮮古語辭典》으로 되어 있다. 이 書根題가 잘 말해 주듯이 死語인 고어, 古制度語를 함께 제1부 본문에서 다루고, 이두는 제2부에서 다루었다. 고제도어와 이두는 예문과 출처를 제시하지 않은 반면, 死語인 고어와 歷史語는 한두 개의 예문 뒤에 권차와 장차 표시 없이 문헌의 약호를 제시하였다. 풀이말은 현대어로 비교적 상세하게 단 셈이다. 고어에 대하여는 간혹 역사적 변천과정을 보여 주기도 하고 형태분석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표제항에 성조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²⁶⁾ 아래아를 표기에

보인다. 이것은 시기만 달리 할 뿐, ⑨와 거의 유사한 성격을 보인다고 할 것이다.

26) 이 사전에서 성조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그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정에 말미암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전의 일러두기에 '사성 점(四聲點)은 이조 선조 대(宣祖代)에 획기(劃期)하여 점차 쓰이지 아니한 것이요, 또 때가 역사적으로 미증유의 대수란(大受難)의 과도기라, 되도록 인쇄를 쉽게 하기 위하여 생략함'이라고 적고 있는 데에서

반영하였으나 ‘한나형 말’의 ‘한’만은 인쇄의 편의상 다 ‘하’로 표기하였다. 표제 항이 역사어일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내세운 견해를 수용하였으면 그 사람의 학설임을 밝힌 점이 흥미롭다.²⁷⁾ 이두의 경우에는 한자의 획수별로 배열하였는데 차자표기 그대로 표제항을 삼고 [] 속에 그 독법을 제시하였다. 부록은 ‘국문 고서 약지’라고 하여 古書에 대한 정보를 種別, 書名, 著者, 年代, 版種, 發刊地, 藏者, 備考, 略號 순으로 도표화하여 표시하였다.

⑬은 먼저 본문에는 死語로서의 고어만 수록하여 순수언어사전의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고어의 표제항은 성조표시 없이 배열하였다. 예문의 출처는 예문 바로 앞에다가 문헌의 약호만 가지고 제시하였다. 부록으로 한자어와 이두어를 섞어서 수록해 놓았는데 이두어는 풀이말 다음에 「吏讀」라고 표시해 두었다. 표제항은 한자어와 이두어의 현대한자음을 한글로 적고 괄호 안에 해당 한자표기와 이두표기를 적되, 이두표기 뒤에는 그 독법을 적어 두었다. 여기서 말하는 한자어는 古制度語에 해당한다.

⑭은 이두는 수록하지 않았다. 1971년의 보정판은 1960년의 초판에서 누락된 어휘를 추가하여 놓은 것이다. 표제항에 성조가 표시되어 있으나 그 변동형은 표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주로 현대어적 관점에서 허귀하다고 생각되는 어형을 중심으로 등재시키려고 한 경우가 많아 정제되지 않은 면을 꽤 많이 드러내고 있다. 전문가용이면서도 초학자용에 가깝다는 인상을 준다.

⑯은 1990년대 이전에 간행된 고어사전류로서는 가장 충실한 편에 속한다. 그만큼 그 동안 독자들이 많이 활용한 고어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 형태에 대한 인식은 있었으나 그 활용형이나 곡용형을 제시하지 않아 초학자가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다. 뜻풀이에서 자신이 없는 곳은 공백으로 남겨 두었는데 차라리 未詳이라고 표현하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관계어 제시에 거의 힘을 기울이지 않은 점이 유난히 부각되어 보인다. 이두는 부록에 따로 수록하였다. 이두 독법을 표제항으로 삼고 가나다 순으로 표제항을 배열했는데 () 속

그 사정을 알 수 있다.

27) 대개 梁桂東의 『朝鮮古歌研究』(博文出版社, 1942)에 개선되어 있는 견해가 인용되어 있다.

에 이두표기를 적고 간략한 뜻풀이를 행하였으며 예문은 없이 출처만 문헌약호로 제시해 두었다.

⑪은 대체로 ⑫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 먼저 본문에 死語인 고어를 고제도어와 함께 수록하였고, 그 뒤에 ‘리두(吏讀)’라는 제목 아래 한자의 획수별로 이두를 수록하였는데 차자표기로 된 것을 표제항으로 삼고서 [] 속에 그 독법을 적고 그 다음에 풀이말을 적어 두었다.²⁸⁾

이 고어사전들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통시적 사전은 아니면서도 시대를 구분하지 않고 현대어 이전의 한국어 어휘를 섞어서 수록하였고, 고어 가운데 死語를 위주로 하여 등재하고 잔존어는 매우 적게 표제항으로 다루었으며²⁹⁾ 한자로 표기되는 어휘를 표제항으로 등재시키지 않았다는 공통성을 보인다. 표제항의 배열순서가 고어사전마다 각양각색이라는 점도 크게 우려되는 일이다. 앞으로 사전에 올릴 자모의 순서가 현대어의 것만이 아니라 고어의 것도 통일되게 정해질 필요가 있다.³⁰⁾ 무엇보다 큰 문제는 실려 있는 예문들이 풍부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고어사전이 용례집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풍부한 예문들을 통하여 각 표제항의 어휘가 보이는 음운론적·형태론적·통사론적·어휘론적인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휘들이 가지는 다양한 제약관계, 그 것들이 구성하는 문장유형 등에 대한 폭넓고 깊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축적될 때 표제항 아래에 수록될 예문도 한층 더 풍부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등재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시점에서 볼 때 많은 문헌자료가 새로이 발굴되어 나와 있을 뿐 아니라 각 시기의 한국어에 대한 한국어사적 지식이 예전에 비해 아주

28) 이 사전을 미처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졸고(1992 : 659~660)에서는 북한에서 전문적인 고어사전류가 단행본으로 간행되지 못하였다는 기술을 행하였는데 그러한 견해가 잘못 이었음을 여기에 밝혀 수정하고자 한다.

29) 고어사전류가 확장형 사전류와 다른 점은 반드시 死語만을 표제항으로 등재시킨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하늘’처럼 현대어와 표기가 다른 殘存語들은 표제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30) 현대어 사전에 올릴 자모의 순서는 198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글 맞춤법》의 제4항 [붙임2]에 규정되어 있다. 이 《한글 맞춤법》은 원리상 현대 표준어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사라져 버린 옛 자모에 대해서는 발언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현대어 표제항의 순서뿐 아니라, 고어 표제항의 배열순서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깊어진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대폭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고어사전이 시급하게 편찬되어 나와야 할 것이다.

⑯은 가장 최근에 간행되어 나온 것으로서 그 성격은 기본적으로 17세기 한국어에 대한 용례집이라고 할 수 있다. 고유어와 한자어인 큰 표제항 밑에 활용어나 곡용어를 보이고 그 각각에 대한 용례들이 나열되어 있다. 그러나 표제항에 대한 뜻풀이가 시도되어 있어 고어사전의 성격도 어느 정도 띠고 있다. 27,716개의 표제항에 대하여 202,728개의 용례를 담고 있는바, 17세기에 간행되어 나온 문헌 24종 73권에 담겨 있는 17세기 한국어가 그 대상이 되었다.³¹⁾ 앞으로 《18세기 국어사전》, 《19세기 국어사전》도 뒤이어 나올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 이와는 달리 좀더 세분화된 전문사전 부류를 살펴보기로 한다.

- ⑰ 1976. 장지영 · 장세경, 《이두사전》, 서울 : 정음사.
- ⑱ 1979. 法制處, 《古法典用語集》.
- ⑲ 1992.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韓國漢字語辭典》卷一, 서울 : 檀國大學校出版部.
- 1993.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韓國漢字語辭典》卷二, 서울 : 檀國大學校出版部.
- 1995.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韓國漢字語辭典》卷三, 서울 : 檀國大學校出版部.
- 1996.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韓國漢字語辭典》卷四, 서울 : 檀國大學校出版部.
- ⑳ 1993. 흥윤호 · 심경호, 《15세기 한자어 조사 연구》, 서울 : 국립국어연구원.
- ㉑ 1994. 宋基中 · 南豐鉉 · 金永鎮, 《古代國語 語彙集成》,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㉒ 1995. 李秉根, 《杜詩諺解 索引集》(I) · (II), 서울 : 以會文化社.

이들 가운데에는 사전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 ㉓과 ㉔가 그것인바, 그 기본적 성격은 자료집에 해당한다. 이러한 자료집들이 앞으로 편찬되어 나올 전문사전의 기초적인 모습을 잘 보인다고 판단하여 여기에 포함하여 함께 언급하기로 한다.

31) 이 《17세기 국어사전》에 대한 서평은 李秉根(1995)을 참조하기 바란다.

⑯는 이두만 수록해 놓은 전문 이두사전에 속한다. 그러나 이 책은 보통의 전문사전과는 달리 총론, 제1편 이론편, 제2편 자료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편 자료편이 이두사전에 해당하는데 현대의 한국한자음을 기준으로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고 풀이말 뒤에 몇 예문을 들고 출처까지 밝혀 놓았다. 표제항은 다 한자로 표기되어 있다. 문법형태를 포함하는 이두어형은 지금까지의 관례에 좁아 형태분석을 꾀하지 않고 그 전체 덩어리를 표제항으로 등재하고 있는데, 표제항 가운데에는 간혹 개별적인 문법형태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앞으로 이 사전을 대체할 만한 이두사전류가 다른 한 개인에 의해 새로이 간행되어 나올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니 이두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행해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해보게 된다.

⑰은 고제도어와 이두의 불변형태류를 모아 뜻풀이를 해 놓은 일종의 事典이다. 예문과 출처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대개 한자어휘와 이두어휘를 다루고 있다. 표제항은 현대의 한국한자음을 한글로 적고서 [] 속에 한자로 적어 두었다. 예컨대, ‘봉상[捧上]’, ‘위항문학[委巷文學]’ 식으로 표제항을 달고 그 뒤에 뜻풀이를 덧붙이고 있을 뿐 ‘받자’ 내지 ‘맞자’ 식으로 그 이두의 독법을 표제항에도 제시하지 않았고 풀이말에도 포함시켜 놓지 않았다. ‘되지기’식으로 [] 속에 한자표기나 이두표기를 보이지 않은 표제항들도 더러 있다는 점을 지적해둔다.

⑱은 최근에 완간되어 나온 한자어사전이다. 한국에서 간행되어 나온 옛 문헌에 수록되어 있는 한자어를 거의 다 망라하여 수집하고서 충실한 뜻풀이를 붙이고 있으며, 대개의 경우 대표적인 예문을 들고서 그 앞에 출처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많이 알려져 있는 어휘나 고유명사의 경우에는 출처만 간단하게 밝히거나 아예 생략해 버리기도 하였다.

⑲는 15세기에 간행되어 나온 언해문헌과 한문문헌에 나타나는 한자어를 수집하여 자료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크게 보아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부분은 15세기의 언해문헌에 나타나는 한자어휘들을 표제항으로 삼고 그 활용형 및 곡용형에 대해 대표적인 예문을 하나씩 들고 출처를 표시해 놓았다. 뜻풀이까지 되어 있으면 더욱 좋았을 터인데 아쉽게도 그러하지 못하다. 기존의 고어사전류에서는 한자로 표기되는 어휘들을 다루지 않았는데 이러한 작

업결과가 쌓임으로써 앞으로는 고어사전류에도 한자어휘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 부분은 15세기의 《朝鮮王朝實錄》과 《經國大典》에 수록되어 있는 한국한자어에 대한 주해집에 해당한다. 이 부분은 ②0, ②1과 비슷한 성격을 띤다. 대표적인 예문 하나씩과 출처를 표시해 놓았다.

②0은 고려시대 이전의 고대한국어 시기와 관련되어 있는 문헌에 나타나는 한국한자어들을 집성해 놓은 것이다. 이 ②0도 크게 보아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와 같은 한국족 역사서에 나타나는 한국 한자어 및 고유명사 표기와, 중국족 역사서에 나타나는 한국족 고유명사 등을 수집하여 그 출처를 밝혔고, 다른 하나는 고대한국어 시기의 금석문이나 고문서에 나타나는 이누어휘 및 고유명사를 집성하고 출처를 밝혀 놓은 것이다. 이 자료집의 표제항이 보이는 구조는 '개리이 皆利伊 [島. 地] 史 37.17a'와 '거去 [新. 動] 赤城, 新羅帳籍 2회, 禪林院'식으로 짜여져 있다. 현대의 한국한자음 표기로써 표제항을 세시하고 뒤이어 그에 대한 한자표기를 달아 두었는데, 뜻풀이가 보류되어 있고 예문도 제시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두의 경우에는 그 독법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 매우 아쉽다. 앞으로 이러한 기본 자료집을 바탕으로 더 좋은 연구결과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1은 《杜詩諺解》 초간본에 담겨 있는 原詩의 한자 또는 한자어에 대하여 언해문이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대비한 일종의 색인집이다. 《杜詩諺解》의 언해 양상에 대하여 파악하기 쉬운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작업이 쌓이면 한국어의 어휘사적인 연구가 한결 손쉽게 행해질 수 있을 것이다.

5. 바람직한 古語의 處理方式

이 글에서는 앞으로 고어사전이나 고어를 담고 있는 확장형 한국어사전의 편찬을 시도할 때, 고어를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제시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논문의 분량 관계상 이 작업은 소루하게 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여기에 간단하게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함으로써 그 소임을 다

하는 것으로 치부하고자 한다.³²⁾

앞에서 우리는 고어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확장형 한국어사전과 선별형 고어사전이 차이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원론적인 면에서 볼 때 이 두 부류의 사전에서 고어를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야 할 이유가 없으리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선별형 고어사전에서 고어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만 생각해 보아도 족할 것이다. 단지 확장형 사전에서는 잔존어가 현대어와 표기까지 같은 경우 그것이 고어에서도 사용되었다는 정보를 어떤 식으로든 표시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다. 뜻풀이를 행한 뒤에 고어에도 사용되었다는 정보를 주고 그 어형이 나타나는 최초의 문헌에 보이는 예문을 들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제 선별형 고어사전류를 대상으로 고어의 처리방식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먼저 거시구조와 관련하여서는 표제항의 단위, 그 선정 및 배열이 문제된다. 사전이 최대한 친절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표제항은 가급적 많을수록 좋다. 그렇다고 해서 표제항으로 등재할 거리가 되지 않는 항목까지 무턱대고 다 등재시킬 수는 없다. 용언의 활용형이나 체언의 곡용형이 표제항의 단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현대어사전에서건 고어사전에서건 동일하게 지켜져야 할 사항이다. 다양한 표기양상을 보일 경우에는 그것들을 다 참조적인 표제항으로 삼되,³³⁾ 대표표제항으로 가서 보라는 표시를 해 주어서 뜻풀이나 관계어 등에 대한 정보

32) 구체적인 실례를 가지고 다루는 일은 다음 기회에 행해 보도록 한다. 독자들의 양해를 바란다.

33) 참조적인 표제항 밑에는 그에 딸리는 미시구조를 다 제시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문은 들어 주는 것이 좋다. 예문까지 대표표제항에서 다 다를 경우 너무 번잡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음운론적·문법론적·어휘론적인 정보와 관련하여서는 예문이 나뉘어 등재될 때 충분한 정보가 제시되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는 어쩌면 사소하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적어도 다양한 문법정보를 구하게 되는 사람들은 관련항목들을 다 검토할 것이기 때문이다. 관계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불규칙용언이나 이론바 특수어간교체를 보이는 語詞들의 變異形態를 참조적인 표제항에 등재시키는 문제도 이와 같이 처리할 수 있다. 변이형태와 관련하여 《우리말 큰사전》(1992)이 취하는 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앞으로 고어사전을 편찬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올바른 방향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한다.

를 그곳에서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휘형태 및 문법형태는 원칙적으로 다 표제항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형태들의 변이형태를 최대한 참조적인 표제항에 반영해 주되, 그에 대한 뜻풀이는 대표표제항으로 가서 보라는 표시를 해주는 것도 앞과 同軌의 조처이다. 이른바 律動規則에 의하거나 시대 차이에 의해 성조표시가 달리 실현되는 항목이나, 성조의 소멸과 관련되어 성조표시의 유무에서 차이를 보이는 어휘들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처리되어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같은 모습을 가지는 어떤 어휘가 현대어와 고어에서 그 의미의 차이를 보일 경우 그것을 사전에 반영해야 한다. 최근에 간행되어 나온 확장형 한국어사전류에서 북한어를 표제항으로 실었을 경우에 남·북한에서 의미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표제항을 달리 하여 다른 뜻풀이를 제시하고 있듯이, 고어사전류에서도 그와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시간과 공간의 차이만 있을 뿐인 것이다. 파생어나 합성어가 표제항의 단위가 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복합어를 식별해 낼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두고두고 고민해야 할 사항이 될 것이다.

표제항의 배열순서가 고어사전마다 다르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현대어에서와 동일한 字母는 《한글 맞춤법》(1989)에 규정된 순서를 따르되, 모음 'ㅓ', 'ㅗ', 합용병서 'ㅕ', 'ㅛ' 등과 같은 고어의 자모는 현대인들이 관습적으로 발음하는 양상과 문자적인 관점을 혼합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필자는 생각해 오고 있다. 이와 비슷한 문제로서 고어사전에서 한자로 표기된 15세기 한국어의 어휘를 표제항에 등재시킬 경우를 생각해 보자. '次第'라는 명사를 사전에 등재시킬 때 '초례'라는 고유어 뒤에 등재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次第'의 15세기 현실한자음을 따를 것이냐 이른바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따를 것이냐 하는 문제도 여기에서 나서겠지만, 1. 당대의 현실한자음을 대개는 잘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한자어에 대해 그것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노릇이다. 우리가 옛 문헌을 낭독할 때에는 모든 한글자모나 한자어를 현대어식으로 읽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ㅐ'가 중세한국어에서 단모음 [æ]가 아니라 이중모음 [aj]였고, 'ㅈ'이 구개음 [tʃ]이 아니라 치조음 [tʂ]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현대어처럼 읽고 발음하며, ‘大夫’를 16세기 현실한자음으로 [대부]가 아니라 [태우]라고 懸音해 둔다고 하더라도 [대부]로 읽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 이러한 현대어식 발음양상을 표제항의 배열순서 결정과정에서 충분히 고려에 넣자는 것이다. 현대인들이 ‘、’는 [ㅏ]로 발음하며, ‘ㄱ’은 [ㄲ]으로, ‘ㅋ’은 [ㄸ]으로, ‘ㅌ’은 [ㄲ]으로 발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먼저 고려하고 이차적으로 문자적으로 볼 때 ‘、’는 그와 발음상 밀접히 관련되는 ‘ㅏ’ 뒤에, ‘ㄱ’은 그와 발음상 밀접히 관련되는 ‘ㄲ’ 뒤에, ‘ㅋ’은 그와 발음상 밀접히 관련되는 ‘ㄸ’ 뒤에, ‘ㅌ’은 그와 발음상 밀접히 관련되는 ‘ㄲ’ 뒤, 그리고 ‘ㅅ’ 뒤에 배열하는 것이 순조롭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 기회에 더 행하기로 한다.

미시구조와 관련하여서는 품사분류, 뜻풀이, 예문제시, 관계어 및 참조사항 제시 등이 문제된다. 여기에서는 예문제시에 대하여만 관심을 가지기로 한다. 다른 사항들은 이미 한재영(1989)와 洪允杓(1992)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예문을 다양하고도 풍부하게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用例辭典도 아닌데 모든 예문을 다 제시할 수는 없다. 음운론적인 정보를 보일 예문은 한두 개면 족할 것이다. 형태론적 정보와 어휘론적 정보는 참조적인 표제항과 제시된 관계어 표시를 통하여 어느 정도 쉽게 보일 수 있다. 문제는 통사론적인 정보를 많은 예문을 통하여 잘 드러내어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통사론적인 정보는 주로 용언과 관련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는 최근 들어 李賢熙(1991, 1994a), 韓在永(1994)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연구결과가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고어사전의 편찬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더 많은 용언의 구문유형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옛 문헌에서 매우 길게 이어져 나타나는 문장 전체를 끊어서 예문으로 들어야 할 필요가 생겨난다. 李賢熙(1994a)에서는 매우 길게 이어져 나타나는 문장을 意味段落을 중심으로 끊어서 수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의미 단락은 주로 연결어미 ‘-니’에 의해 실현된다.³⁴⁾

34) 중세한국어에서 연결어미 ‘-니’는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용법을 보이는데, 시상·서법·요소등이 통합될 수 있는 ‘-니’와 그것들이 통합될 수 없는 ‘-니’의 두 종류가 존재한다. 그 가운데 전자가 의미단락을 완결짓는 기능을 가진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李賢熙(1994a)를 참조하기 바란다.

6. 맷음말

이제 새로운 확장형 사전과 새로운 고어사전이 편찬되어 나와야 한다고 학계의 인식이 깊어지고 그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이미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종합국어대사전》(가칭)을 편찬하고 있으며, 몇몇 대학에서도 大辭典級의 새로운 한국어사전을 편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직 고어사전만은 어떤 단체나 연구소에서 편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다. 단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근대한국어 시기의 세기별 사전을 편찬하고 있다는 사실 정도가 확인될 뿐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편찬하고 있는 사전은 世紀別 辭典으로서 用例辭典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미 간행되어 나온 1995년의 《17세기 국어사전》이 그 성격을 극명하게 잘 보인다.³⁵⁾ 그만큼 고어사전의 편찬이 힘들다는 사실을 말한다 할 것이다. 물론 용례사전의 편찬이나 색인작업도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몇몇 개인이 고어사전, 특히 중세한국어 시기의 세기별 사전의 편찬에 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어사전의 편찬은 개인의 힘만 가지고 해내기에는 너무나 벅찬 작업이다. 앞으로 보다 많은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세기별 사전이 간행된 이후에는 통시적 고어사전의 편찬도 꿈꾸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이두사전과 구결사전 등의 借字表記語彙辭典도 편찬되어 나와야 한다. 기존의 《이두사전》(1976)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새로이 발굴되어 나온, 三國時代나 高麗時代의 이두자료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原典批判과 형태분석이 거의 시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독법이 밝혀져 있는 조선시대 중·후기의 이두만이 아니라 독법이 제대로 밝혀져 있지 않은,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의 이두도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시대별 이두사전으로 나뉘어 편찬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구결에 한글구결과 借字口訣이 있음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거니와, 1975년 이후 조금씩 발굴되어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

35) 이 사전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이미 앞에서 행한 바 있다.

국어학계를 달뜨게 만든 바 있는 《舊譯仁王經》(上), 《華嚴經》 권 14, 《華嚴經疏》 권 35, 《瑜伽師地論》 권 20, 《金光明經》 권 3 등의 釋讀口訣資料와 12·13세기 고려시대의 音讀口訣資料가 속속 발굴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들도 반영한 구결사전이 편찬되어야 할 것이다. 차자표기에 대한 연구가 1990년대 들어 성숙기로 접어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도 이와 같은 여러 사전들의 편찬에 대한 의욕을 고무시키고 있다.

이러한 전문사전의 편찬작업이 충실히 이루어짐으로써, 더욱 욕심을 내자면, 고어사전류에서도 通時의 古語辭典, 逆順辭典, 현대어의 표제항에 고어를 풀이말로 하는 逆方向辭典, 동사사전·형용사사전·부사사전 등의 品詞別辭典 등이 더 편찬되어 나올 수 있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전편찬에 있어서는 사전편찬자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사전의 독자층도 항상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 상정되는 독자층에 따라 사전의 성격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전의 존재만이 다양한 독자들의 욕구를 충분하게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일반사전과 전문사전에 두루 적용되는 명제일 것이다.

<參考論著>

- 金敏洙(1981), 《新國語學史》, 全訂版; 서울 : 一潮閣.
- 金琪鐘(1992), <中國 朝鮮語 規範 辭典에서의 標題語의 收錄 原則과 標題語의 性格>, 《東洋 三國의 辭典 編纂에 관한 國際學術會議論文集》, 서울 : 國立國語研究院.
- 남기심(1987), <국어 사전의 자모의 차례와 표제어의 배열순>, 《인문과학》 57, 서울 :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박금자(1989), <북한의 국어사전 평설>, 고영근 편, 《북한의 말과 글》, 서울 : 을유문화사.
- 徐在克(1976), <新字典의 새김말에 대하여>, 《國文學研究》 5, 大邱 : 曉星女子大學校 [《국어어형론고》(계명대학교출판부, 1990)에 재수록됨].

- 俞昌均(1961), <古語辭典>, 《語文學》7, 大邱 : 韓國語文學會.
- 李基文(1992), <國語辭典의語原表示에 대하여>, 《東洋三國의辭典編纂에 관한國際學術會議論文集》, 서울 : 國立國語研究院.
- 李秉根(1982), <國語辭典史 片考>, 《백영정병우선생 환갑기념논총》, 서울 : 신구문화사.
- 李秉根(1986), <國語辭典 編纂의歷史>, 《국어생활》7, 서울 : 국어연구소.
- 李秉根(1990a), <辭典 및 辭典學>, 《國語研究 어디까지 왔나》, 서울 : 東亞出版社.
- 李秉根(1990b), <북한의 국어사전과 사전학>, 국어국문학회 편, 《북한의 국어문화 연구》, 서울 : 지식산업사.
- 李秉根(1995), <서평 : 17세기 국어사전(상)(하)>, 《정신문화연구》18권 4호 (통권 61호),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李庸周(1986), <辭典 詮釋에 대하여>, 《국어생활》7, 서울 : 국어연구소.
- 이익환(1988), <어휘의 의미변천과 사전>, 《사전 편찬학 연구》2, 서울 : 塔出版社.
- 이익환(1992), <국어 사전 뜻풀이와 용례>, 《새국어생활》2.1, 서울 : 국립국어연구원.
- 李賢熙(1991), <15세기 국어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적 연구(1) : 화법·사유·인지·감각동사의 구문 유형을 중심으로>, 《周時經學報》7, 서울 : 塔出版社.
- 李賢熙(1992), <북한의 국어사 및 국어학사 연구>, 《語學研究》28.3, 서울 : 서울人學校 語學研究所.
- 李賢熙(1993), <前間恭作(1924), 《龍歌故語箋》>, 《周時經學報》11, 서울 : 塔出版社.
- 李賢熙(1994a), 《中世國語構文研究》, 서울 : 新丘文化社.
- 李賢熙(1994b), <'樂學軌範'의 國語學의 考察>, 《震檀學報》77, 서울 : 震檀學會.
- 정순기·리기원(1984), 《사전편찬리론연구》,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 조재수(1984), 『국어 사전 편찬론』, 서울 : 과학사.
- 조재수(1986), 『북한의 말과 글 : 사전 편찬을 중심으로』, 서울 : 한글학회.
- 조재수(1988), <북한의 사전 편찬에 대한 고찰>, 『국어생활』 15, 서울 : 국어연구소.
- 지춘수(1969a), <고어 사전 주석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젯점(I)>, 『한글』 143, 서울 : 한글학회.
- 지춘수(1969b), <고어 사전 주석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젯점(II)>, 『한글』 144, 서울 : 한글학회.
- 차재은(1991), <북한의 사전편찬사>, 김민수 편, 『북한의 조선어연구사 2 : 실용분야』, 서울 : 도서출판 緑進.
- 최윤갑(1987), 『중세조선어문법』, 중국 : 연변대학출판사.
- 최윤갑 주필(1992), 『중국에서의 조선어의 발전과 연구』, 중국 : 연변대학출판사.
- 한재영(1989), <15세기 국어 사전 편찬에 관한 몇 문제 : '고어사전'과 '이조어 사전'의 편찬을 중심으로>, 『語學研究』 25.3, 서울 : 서울大學校 語學研究所.
- 한재영(1992), <국어대사전과 우리말큰사전>, 『문학과 사회』 제V권 제2호 (통권 18권), 서울 : 문학과지성사.
- 韓在永(1996), 『十六世紀 國語 構文의 研究』, 서울 : 신구문화사.
- 洪允杓(1992), <古語의 풀이말>, 『새국어생활』 2.1, 서울 : 국립국어연구원.
- 小田幹治郎(1920), <朝鮮語辭典編纂の經過>, 『朝鮮語辭典』 京城 : 朝鮮總督府.
- 菅野裕臣(1975), <平壤出版の朝鮮語辭典>, 『朝鮮學報』 77, 日本 : 朝鮮學會.
- 河野六郎(1974), <故前間恭作先生の朝鮮語研究>, 『前間恭作著作集』 上卷, 日本 : 京都大學 國文學會.
- 末松保和(1957), <前間先生小傳>, [『前間恭作著作集』 下卷(京都大學 國文學會, 1974)에 재수록됨].
- 中村完(1962a), <最近の朝鮮語辭典について(一)>, 『朝鮮學報』 23, 日本 :

朝鮮學會.

中村完(1962b), <最近の朝鮮語辭典について(二)>, 『朝鮮學報』25, 日本:
朝鮮學會.

中村完(1968), <劉昌惇著 『李朝語辭典』>, 『朝鮮學報』47, 日本: 朝鮮
學會.